

精神科 看護實習 過程과 自己實現에 關한 研究

李 光 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 이근후 조교수)

目 次

I. 緒論	IV. 結論 및 提言
II. 研究方法 및 節次	參考文獻
III. 研究結果 및 考察	論文抄錄

I. 緒 論

A. 問題의 提起

臨床實習教育이란 看護教育을 기초로 하여 환자간호를 위한 학생들의 實習經驗을 직접 計劃 組織하여 가르치고 評價하는 것으로서 그 役割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實習地에 옮겨서 理論과 知識을 환자 간호에 적용 시키는 것이다.

臨床實習教育의 目的은 行動變化의 誘發에 있으므로 實習 終了後 학생들의 行爲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는가를 測定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야 한다(오가실 1974).

Mealey and Peterson(1974)과 Hayes and Swenson(1963)은 간호교육자나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에서도 精神科 看護實習時에 간호학생들에게 心理的 變化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더우기 간호 학생들의 대부분의 연령층을 18-22세의 前後라고 볼 때 이 시기는 청년기로서 인간의 성장과 발육이 완성되는 시기이며 본인에게나 부모에게나 緊張을 주는 시기이므로 많은 心理的 變化가 올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교사의 役割은 강홍순(1971)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찾아내어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함과 학생들의 成熟에 이르기 위해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교육의 役割이라고 한다.

Gunter(1969)는, 간호교육자는 학생의 潜在力을 발달시키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環境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육자들은 간호학생의 發達段階 및 心理狀態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간호의 대인관계적 면과 간호원 자신의 치료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精神疾患의 보호적인 간호에서 치료적인 간호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간호교육자들에게 教育課程에서 간호학생의 自己實現에 관련된 요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本 研究者도 精神科實習指導시에 학생들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또는 “나 자신을 보다 더 잘 알게 도와준 실습이었다.” 등의 말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자극을 받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어떠한 測定할 수 있는 自己實現의 變化가 있을까 하는 疑問이 들게 되었다. 현재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態度調査나 精神病患에 대한 態度研究 등은 많이 報告되어 있으나 精神科 看護實習이 학생들의 自己實現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 精神科 看護教育의 效果에 대한 평가문제는 많이 보고 되어 있지 않다.

“The Institute of Therapeutic Psychology”의 Director이며 California에 있는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의 臨床心理學教授인 Shostrom (1964, 1966, 1974)은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POI)를 開發하여 自己實現의 發達에서 重要하다고 보여지는 價值나 行為의 測定을 수립하였다. 이 道具로 Mealey and Peterson(1974)은 정신과 간호실습후에 일어나는 간호학생들의 自己實現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Gunter(1969)도 간호학생의 發達과 自己實現과의 關係를 검토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정신과 간호실습과 비정신과 간호실습후에 일어나는 自己實現의 成度를 測定하여 서로 비교해보고 정신과 간호실습과 간호학생들의 自己實現에 어떠한 相關性이 있는가를 研究하며 兄弟順位와 宗教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도 관찰 分析하여 나타난 結果를 앞으로 교과과정계획과 특히 정신과 간호실습계획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B. 問題의 設定

本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를 究明하려고 한다.

1. 臨床實習과 自己實現과의 關係
 - 가. 臨床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度
 - 나. 臨床實習 經驗 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
 - 다. 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度
 - 라.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度
 - 마. 精神科·非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난 自己實現 成度の 變化에 관한 비교
2. 兄弟順位와 自己實現과의 關係
3. 宗教有無와 自己實現과의 關係
 - 가. 本人의 宗教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
 - 나. 宗教有無에 따라 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度
 - 다. 父母의 宗教 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
4. 實習前·後의 各 尺度間의 相關性

II. 研究方法 및 節次

A.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 사용된 測定道具는 Shostrom이 製作한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POI)이며 韓國 看護大學生의 調査에 이용할 수 있도록 國語로

번역하였다. 번역에 있어서는 精神科 專門醫, 心理學者, 國文學者, 英文學者들과 상의하여 결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1960년까지는 自己實現의 發達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價值나 行為를 測定할 수 있는 具體적이고 信賴性있는 道具의 報告가 없었는데 1963년에 Shostrom이 POI(자기실현점사)를 발전시켰다.

POI는 自己實現度나 肯定的인 精神健康與否를 측정할 수 있는 道具로서 150개의 항목이 두쌍씩의 서로 대치되는 價值行爲나 判斷으로 구성되어있어서 피검사자는 각각의 두쌍의 글월중에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조직되었다.

檢査의 內容은 2개의 比率点数(Ratio Score)와 自己實現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10개의 下位尺度(Sub-Scale)로 構成되었다.

POI의 要因別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比率点数

가. 時間比率 (Time Ratio: Time Incompetence/Time Competence)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時間을 얼마나 效率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過去指向的, 現在指向的, 未來指向的으로 구별된다.

나. 向性比率(Support Ratio: Other/Inner)

人生の 目標가 자신을 향해있는지 他人을 향해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自己를 實現하는 사람은 본래의 行動은 内部指向的이나 사람들의 贊成 愛情, 所望 등에는 민감하게 外部指向的이다.

2. 下位尺度

가. 自己實現性(Self-Actualizing Value : SAV)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自己를 實現하는 사람들의 價值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한다.

나. 實存性(Existentiality : Ex)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人間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價值나 原則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原則適用에 있어서 判斷을 잘 하는가를 측정한다.

다. 要求敏感性(Feeling Reactivity : Fr)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自身の 欲求나 感情에 대해 민감한가를 측정한다.

라. 自發性(Spontaneity : S)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感情表現에 있어서 自發적으로 行動하는지, 두려움을 갖고있는지를 측정한다.

마. 自己價值感(Self Regard : Sr)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개인이 현재의 자기를 어떠한 존재로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자기를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하는지를 나타낸다.

바. 自己受容性(Self Acceptance : Sa)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사. 人間觀(Nature of Man : Nc)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人間の 本性을 根本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측정한다.

아. 生活觀(Synergy : Sy)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人生에서 서로相反된 것을 意味있게 관련된 것으로 보는지, 敵對적으로 보는지를 측정한다.

자. 攻撃受容性(Acceptance of Aggression : A)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간의 内部에 있는 憤怒나 攻撃을 자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차. 包容性(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 C)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他人과의 관계를 期待나 義務感없이 의미 있고 친근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나타낸다.

B. 調査對象 및 節次

1. 調査對象의 設定

調査對象者는 1975年度 現在 韓國에 있는 총 14개 看護學科중 8개 看護學科(梨花, 高麗, 漢陽, 가톨릭, 延世, 慶熙, 釜山, 忠南) 3학년과 4학년의 在學生으로서 1975년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두달 동안에 4주간 精神科 看護實習을 한 101명과 非精神科 看護實習을 한 115명 및 2학년 학생으로서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115명으로 전체 331명이다. 本研究에서 除外된 6개 看護學科는 그들의 실습기간이나 실습경험 등이 本研究의 基準과 어긋나기 때문에 對象에서 제외되었다. 實習前에 一次的으로 檢査를 실시한 사람이라도 實習後에 역시 二次的으로 檢査를 실시하지 못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켜 檢査지의 응답중 15항목 이상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實施對象은 331명 중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選定된 대상자는 310명이었다.

調査對象 學生중 精神科 看護實習學生은 3 - 4 학

년에 걸쳐 전반적인 정신과 간호학 講義를 이미 듣고 난 다음에 실습에 임한 학생으로서 평균 4주간, 175시간의 정신과 간호실습을 한 학생이었다.

檢査日時는 임상실습을 하는 216명 학생에게는 實習前에 1975年 8月 11日에서 9月 8日 사이에 一次的으로 실시하였고 同一人에게 二次 調査는 4週後인 9月 6日에서 10월 4日 사이에 實習後의 檢査를 實施하였다. 2학년 학생 115명에게는 9月初旬에 한번만 실시하였다.

2. 分析方法

應答者의 資料는 實習前과 實習後, 實習經驗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의 차이를 比較하기 위해서 POI의 실시요강에서 밝힌바와 같이 12개 尺度의 裁점표를 사용하여 要因別로 합산하였다. 각 척도별로 합산된 점수는 전자계산조직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을 이용하여 分析하였다. 12개 척도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個人的 變數의 代表값의 차이에 관한 분석은 t-檢證에 의하였다. 實習前과 實習後의 각각의 相關性을 분석하였고 尺度의 상관은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상관계수의 有意度檢證은 t-檢證에 의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考察

A. 應答者의 일반적 特性

1. 應答者의 연령분포

調査對象 學生의 연령분포는 21 - 22세가 가장 많고 (57.4%) 25 - 27세가 (1.2%) 가장 적었으며 18 - 22세가 전체 조사자의 92.3%로 가장 많았다.

2. 應答者의 宗教有無別 分布

조사대상 학생의 宗教別 分布는 無宗教 47.4%, 有宗教 48.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父母의 宗教有無別 分布는 父母의 宗教가 있는 경우가 55.2% 없는 경우가 37.4%로 父母의 宗教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부모의 종교는 두사람중 한사람이라도 宗教가 있는 경우에는 有宗教로 간주하였다.

3. 應答者의 父母有無別 分布

조사대상 학생의 父母有無別 分布는 父母 모두 生存해 계신 학생이 81.9%였으며 어머니나 아버지중 한분만 生存해 계신 학생은 8.8%였고, 모두 안계신 학생도 0.3% 있었다.

4. 應答者 父母의 教育水準別 分布

조사대상 학생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大學 이상

이 47.1%이며 中高等学教가 27.4%로서 大学이상이 많은데 비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中高等学教가 57.4%로 가장 많다. 無学인 경우도 아버지 0.6%, 어머니 1.3%가 있었다.

5. 応答者の 兄弟順位別 分布

조사대상 학생의 兄弟順位別 分布는 중간이 가장 많으며(43.5%) 다음이 첫째, 막내의 순서이다. 本研究에서 첫째라함은 兄弟中 제일 長子인 학생을 말한다.

B. 臨床実習과 自己實現과의 關係

1. 臨床実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就度(圖 1)

臨床実習前보다 臨床実習後에 有意의 差異로 높아진 尺度는 現在指向性(Tc), 内部指向性(I) 自己価値感(Sr), 人間觀(Nc), 包容性(C)이었다.

이와같이 自己實現을 대표하는 2개의 比率点数인 現在指向性(Tc)과 内部指向性(I)에 있어서 현저한 差異로 実習後에 높아졌음은 臨床実習을 통해 自己를 實現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었다. 즉 臨床実習을 통해서 時間을 좀더 效率的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自身을 向해 생각하며 自身을 가치있고 보람있는 存在로 보며 人間の 本性에 대하

여 낙관적이고도 건설적으로 善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他人과의 対人關係에서도 보다 寛大해짐을 볼 수 있었다.

Shostrom(1964)은 158명의 正常成人과 臨床的으로 判斷하여 自己實現을 하는 29명과 自己實現에 도달하지 못한 34명에게 POI를 實施한 결과 세 집단 사이에 12개 尺度中 人間觀(Nc)을 제외한 11개 尺度에서 有意의 差異(P<0.01)가 있음을 밝혔다.

本 研究의 応答者中 臨床実習을 한 学生은, Shostrom의 研究에서 自己實現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点数과 비슷한 分布를 보였으나 自發性(S), 自己受容性(Sa), 人間觀(Nc)의 세 尺度는 自己實現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本研究의 臨床実習学生에서 높았다.

Shostrom의 研究中 自己實現集團의 POI点数과의 比較에서는 12개의 全体尺度에서 本研究의 応答者가 낮았다.

이와같은 結果는 本研究의 応答者가 아직 学生으로서 繼續 成熟하는 過程에 있으므로 自己實現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려되며 또한 美国과는 社会文化的 背景이 달라 POI에 대한 反應度에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思慮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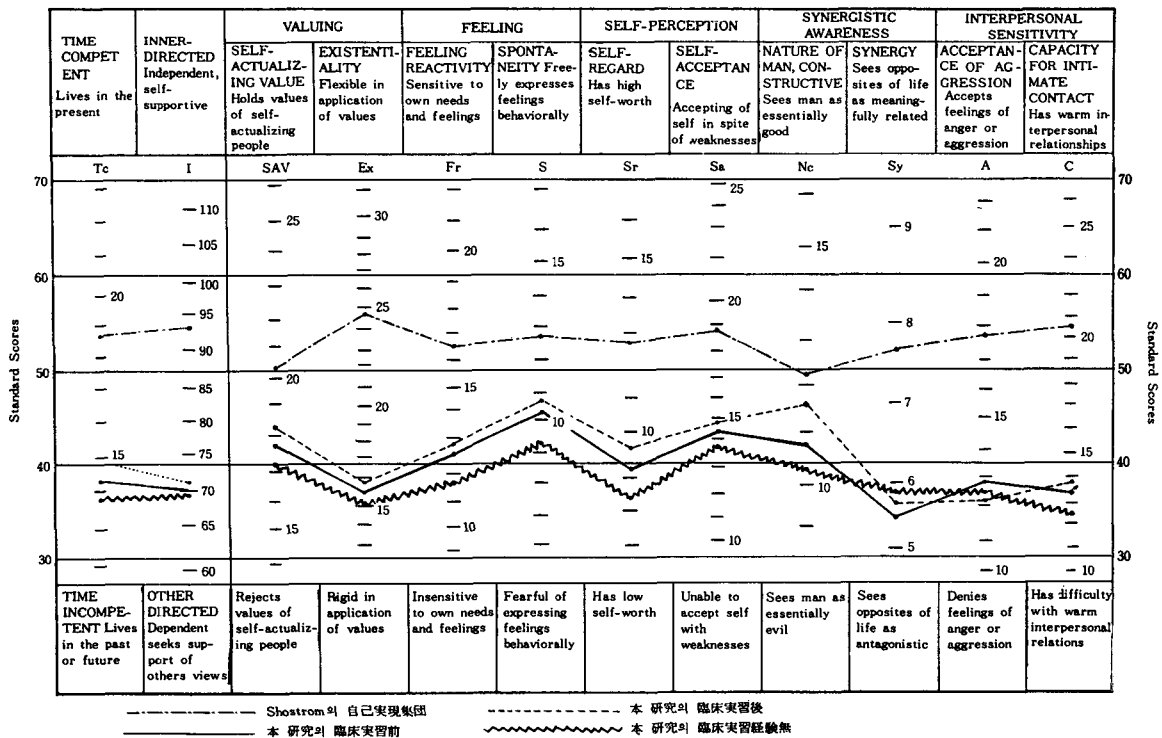


圖 1. Shostrom의 研究과 本研究의 臨床実習 經驗有無에 따른 自己實現 成就度

2. 臨床實習 經驗 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

臨床實習後의 學生과 臨床實習 經驗이 없는 2학년 學生과의 POI點數를 比較해 볼 때 12개 尺度中 生活觀(Sy)을 除外한 11개 尺度에서 2학년 學生이 낮았다. 實習經驗이 있는 學生이 有意의 差異로 높게 나타난 尺度는 內部指向性(I), 要求敏感性(Fr), 自發性(S), 自己價值感(Sr), 包容性(C)의 5개 尺度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2학년 學生은 他人이나 친구와 일치된 행위를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他人에게 繼續 認定을 받으려는 욕구에 싸여있음을 보여 준다. 즉 臨床實習經驗이 전혀 없는 2학년 學生에 비하여 臨床實習經驗이 있는 3·4학년 學生이 좀더 自己實現化되었다.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成熟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나 臨床實習를 통해 보다 더 自己實現이 可能했을 것으로 사려된다.

以上과 같은 결과로 볼 때 看護學生에 있어서 臨床實習를 한후에, 비록 Shostrom의 自己實現集團의 點數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차츰 현저하게 自己를 實現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本 檢査를 보다 広範圍한 集團에게, 看護學科 入學時부터 卒業時까지 同一人에게 實施하는 縱斷的인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사려된다.

3. 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度(圖2)

Mealey and Peterson(1974)의 研究에서는 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看護學生들의 自己實現 成就度에 關係 11주간의 實習後에 POI를 實施한 結果 現在指向性(Tc)에는 별다른 變化가 없었으나 內部指向性(I)에는 有意의 差異로 顯著히 높아졌음을 發見하였다.

즉 實習前에는 標準點數(Standard score)보다 11개 尺度가 낮았으나 實習後에는 10개 尺度가 높게 變化하였다. 그러나 Shostrom의 自己實現集團과 比較할 때는 9개 尺度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研究에서 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난 自己實現 變化의 主要한 領域은 內部指向性(I)이었으나 ($P=0.05$) 本 研究에서는 유의의 差異가 없었고 ($P=0.157$) 現在指向性(Tc)은 實習後 매우 유의한 차이 ($P=0.005$)로 變化하여 Mealey의 研究와 一致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本 研究의 應答者에서 現在指向性(Tc)이 有意의 差異로 높아진 것은 大部分의 精神疾患者가 過去指向的이어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過去の 記憶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過去에 대한 罪意識, 失望, 自責, 非難, 憤慨 등을 하며 過去の 속에서 繼

續 괴로워하거나 혹은 未來指向的이어서 항상 現實을 회피하여 이상적인 目標나 計劃, 期待 등에서 살며, 未來에 대한 空想을 많이 하는 것을 觀察하여 學生自身이 直接 經驗하고 터득한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本 研究의 應答者들은 精神科 看護 臨床實習目的에서 自身을 알고 治療的으로 自身을 利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는 目的아래 實習를 하였으나 이 目的과 符合되는 有意의 差異가 없었음은 實質的 教育內容과 活動이 符合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人間의 自覺(Synergistic awareness) 尺度의 人間觀(Nc)과 生活觀(Sy)은 Mealey의 研究에서는 가장 적은 變化를 보였는데 本 研究에서는 生活觀(Sy)의 變化는 오히려 實習後에 낮아졌으나 ($P=0.407$), 人間觀(Nc)은 有意의 差異($P=0.032$)로 높아져 Mealey의 研究와 一致하지 않았다.

本 研究에서 이와같이 人間觀(Nc)에 有意의 差異로 높아진 것은 精神科 看護實習으로 인하여 人間의 本性을 보다 더 善한 存在로 健設的으로 보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좋은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Mealey의 研究에서는 對人關係尺度(Interpersonal Sensitivity)의 攻擊受容性(A)과 包容性(C)도 有意의 差異로 높았다. 그에 비해 本 研究에서는 攻擊受容性(A)은 實習後 오히려 낮아졌으며 包容性(C)은 實習後 높아졌으나 有意의 差異는 없었다.

이 또한 本 研究의 應答者는 그들의 精神科 看護 臨床實習 目的에서 원만한 對人關係를 이룰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는 目的아래 實習를 하였으나 그 目的과 符合되는 有意의 差異가 없었음은 實質的 教育內容과 活動이 符合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위의 研究結果에서는 學生들이 精神疾患者와의 원만하고 따뜻한 對人關係를 樹立할 수 있는 能力이 不足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있다. 이렇게 未熟한 性格을 지닌 看護學生은 그들이 精神科 看護實習時 患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看護를 하기보다 오히려 精神疾患者에게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데에 重要한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問題는 對人關係的 技術과 能力의 發達에 增進을 가져오도록 하는 知識과 經驗의 不足 및 잘못된 教育方法으로 올 수 있다고 思慮되므로 患者-看護員의 效率的인 意思疏通 등을 매일 기록하게 함으로써 患者와의 治療的인 對人關係를 形成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精神疾患

者는 人間의 本質의 特性을 부정하거나 좌절당할 때
올 수 있으므로 人間의 內的 本性을 實現시키도록 도
와주어야 하는데, 만일 看護學生 自身の 精神健康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自己實現을 못할 때는 精神科 看
護實習을 하면서 오히려 精神患者의 治療를 지연
시키는 結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看護學生의 實
習이 精神患者에게 미치는 影響을 고려하여 看護
學生의 教育에 있어서 自己實現에 重點을 두어 看護
學生 自身の 成熟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本 研究가 Mealey의 研究結果 보다 적은 變化를

일으킨 것은 本 研究의 學生들의 精神科 看護實習期
間이 Mealey의 研究보다 짧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精神科 看護 臨床實習教育이 實習場所 不足과 施設
未備, 指導者 不足 등으로 實質的 教育內容과 活動
이 결여된 觀察에 그친 實習에 기인하여 Mealey의
研究보다 有意의 差異가 적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그
러므로 學生의 잠재력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좋
은 環境의 實習地와 적절한 臨床實習指導方法의 모
색, 教師-學生과의 좋은 關係를 再檢討해야 될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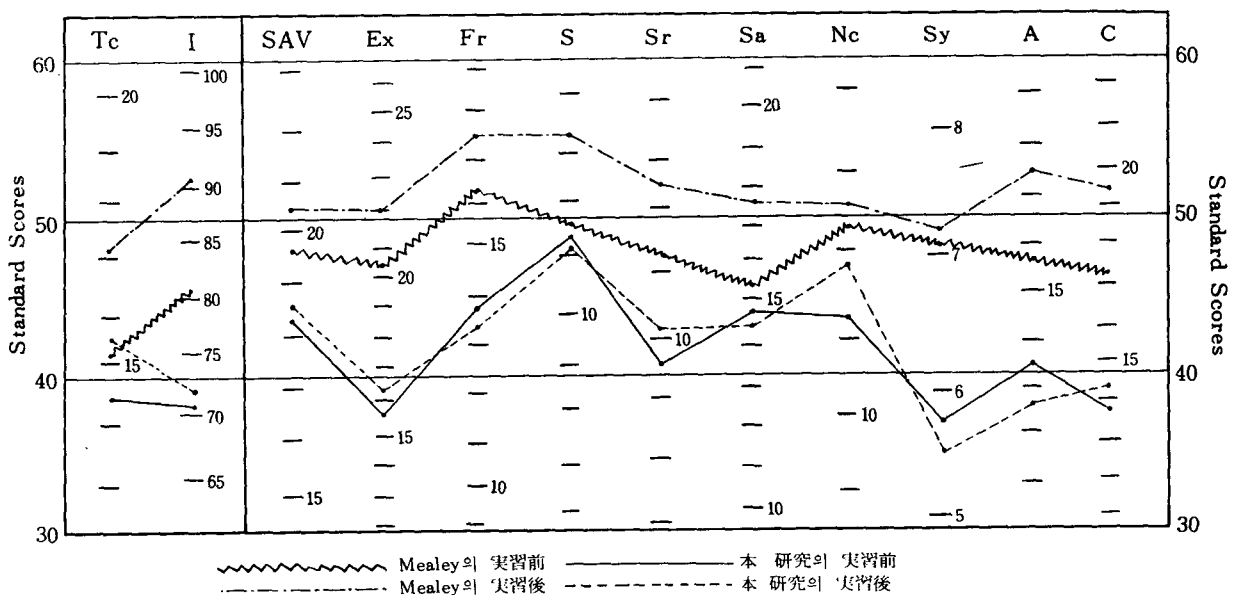


圖 2. Mealey의 研究와 本 研究의 精神科 看護實習前·後의 自己實現成就度

4.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度(圖3)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의 自己實現度는 實習前보다
內部指向性(I), 實存性(Ex), 要求敏感性(Fr), 自發性
(S), 人間觀(Nc), 包容性(C)의 6개 尺度에서 有意
의 差異로 높았다. 이러한 結果는 精神科 看護實習
後에는 現在指向性(Tc), 自己價值感(Sr), 人間觀
(Nc)의 세 尺度에서만 有意의 차이로 높아진 것에 비
하여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에는 더 많은 變化가 일어
났음을 나타냈다. 精神科 看護實習時에는 現在指向
性(Tc)에 顯著한 變化를 보인 것에 반하여 非精神科
看護實習時에는 內部指向性(I)에 현저한 變化를 보
였고 精神科 看護實習時에는 實習後 實存性(Ex)과,
自發性(S)에 有意의 差異를 보이지 않은 것에 비하
여 非精神科 간호실습에서는 實習後 實存性(Ex)과

自發性(S)이 有意의 差異로 높았다. 人間觀(Nc)은
精神科·非精神科 看護實習을 통하여 다같이 높아졌
고 非精神科 看護實習 後에는 自己價值感(Sr)에 有
의의 差異를 보이지 않음에 비해 精神科 看護實習後에는
有意의 差異로 自己價值感(Sr)이 實習後 높아졌다. 이
는 精神科 看護實習에서 精神患者의 觀察로 인하여
自己自身을 좀더 價值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
하게 된 結果라고 사려된다. 包容性(C)도 精神科 看
護實習後에는 有意의 差異가 없었는데 非精神科 看
護實習後에는 有意의 差異로 높았다. 이와같은 結果
는 精神科 看護實習目的을 再檢討해야 될 것으로 사
려된다.

精神科·非精神科 看護實習前後의 변화치에 대한
比較에서 有意의 차이로 變化한 것은 自發性(S) 이

었다. 즉 精神科 看護實習後에는 自發性이 오히려 實
習前 보다 낮아졌는데 반해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에
는 有意의 差異로 上昇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精
神科 看護實習을 한 學生들은 實習後에 自己感情을
行動으로 나타내는데 있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더 많

이 느끼게 되었으며 반대로 非精神科 看護實習을 한
學生들은 實習後에 自己感情을 表現하는데 있어서 더
욱 더 自發적으로 됨을 나타낸다. 이는 精神科 看
護實習으로 因하여 行動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方向
으로 가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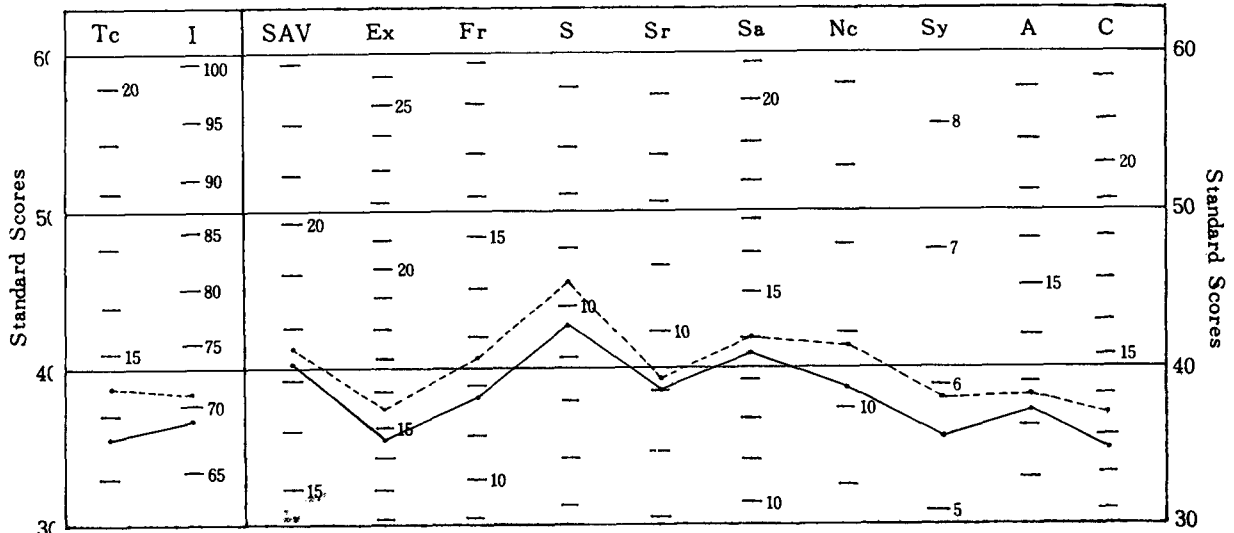


圖 3.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의 自己實現 成就度

1. 兄弟順位와 自己實現과의 關係(圖 4)

兄弟關係는 出生順位에 의해 父母에게서 다른 대
우를 받게 된다. 즉 長子, 次子, 女子, 男子에 따라

父母의 態度와 教育方法이 다르게 마련이다. 한 가
정 안에서 成長하였지만 父母로부터 教育을 다르게
받는데서 人性形成이 달라지고 따라서 自己實現度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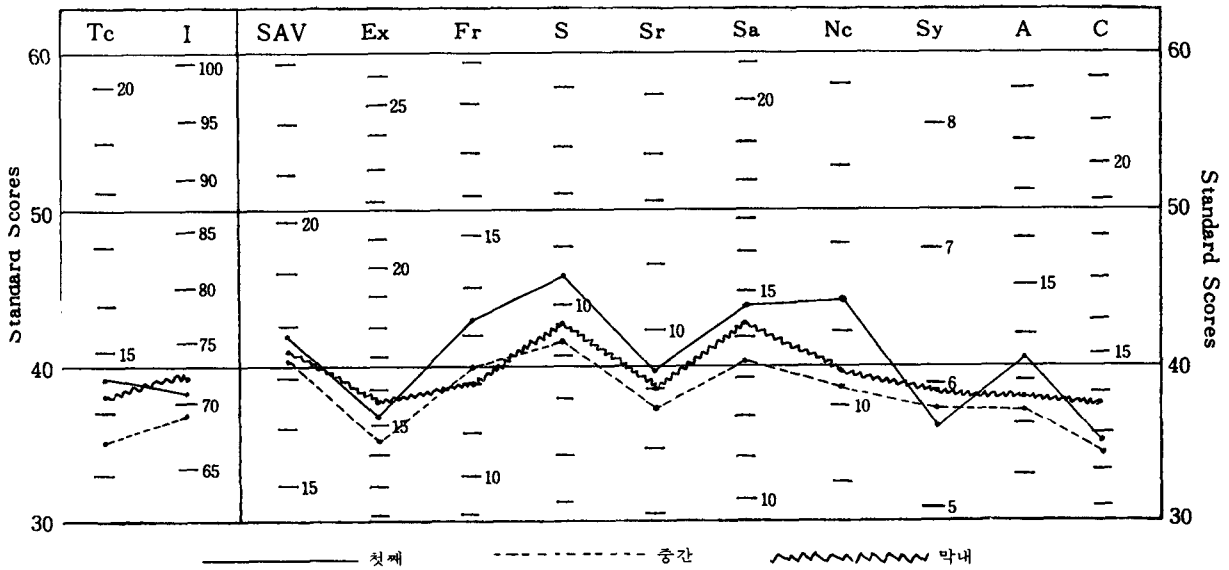


圖 4. 兄弟順位에 따른 自己實現度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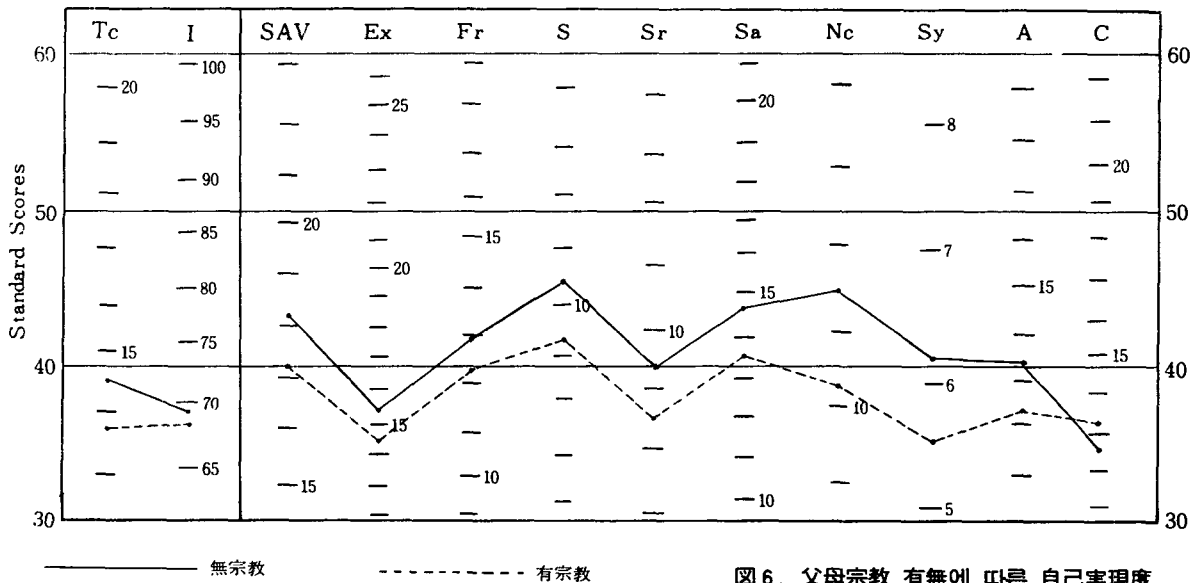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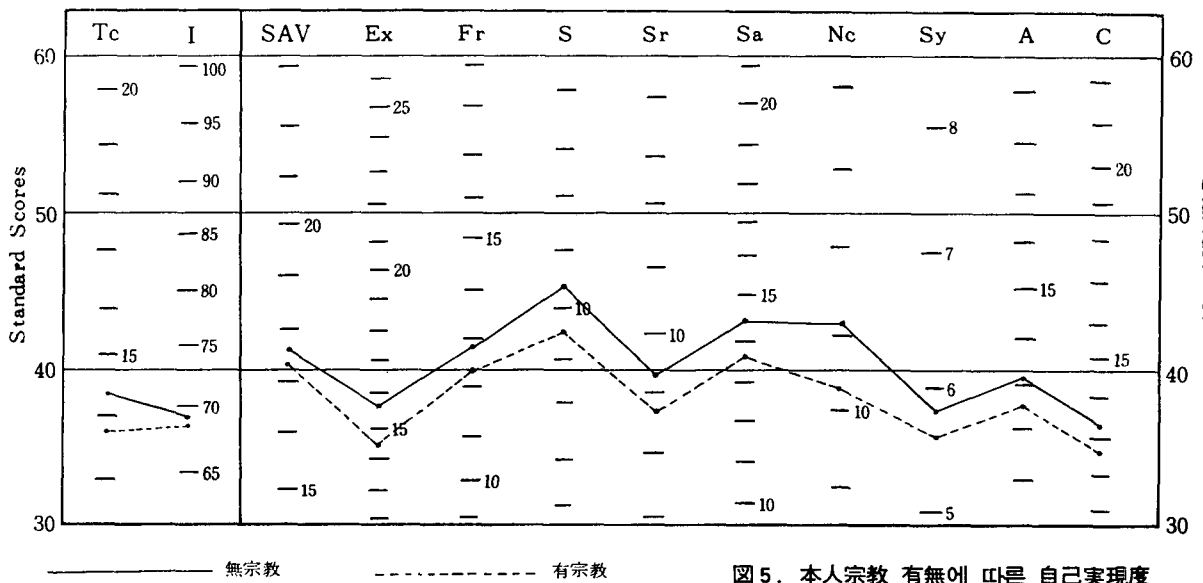
本 研究에서 兄弟順位에 따른 自己實現도를 比較 研究한 結果 兄弟順位中 첫째와 中間, 막내와의 사이에서 有意의 差異를 보인 것은 自己受容性(Sa) 이었다.

즉 中間에 비하여 첫째와 막내는 自己의 弱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能力이 많았다. 또한 現在指向性(Tc), 内部指向性(I), 実存性(Ex), 包容性(C)의 4 尺度에서는 兄弟順位가 중간인 學生이 막내에 비

하여 有意의 差異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첫째와 막내가 中間보다 POI点数가 높게 나타난 것은 長子로서의 責任感이나 父母로부터의 기대감, 사랑으로 인해 다른 兄弟들보다 좀더 自己實現의 可能性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나 継続的인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사려된다.

6. 宗教와 自己實現과의 關係 (圖 5, 圖 6)

無宗敎學生이 有宗敎學生에 비하여 全体尺度에서 높았으나 有意의 差異로 顯著히 높게 나타난 것은



実存性(Ex)이었다.

本人의 宗教有無에 따른 實習前·後의 自己實現 成就度는 宗教의 有無에 相關없이 内部指向性(I)과 人間觀(Nc)은 實習後 有意的 差異로 높아졌다. 現在 指向性(Tc)의 變化는 有宗敎學生에서는 적었는데 無宗敎學生에서 有意的 差異로 實習後 顯著히 높아졌다.

有宗敎學生이 無宗敎學生에 비하여 實習前에는 매우 有意的 差異로 実存性(Ex)이 낮았는데 實習後의 變化에서는 오히려 有宗敎學生이 많이 變化하였다. 父母의 宗教有無에 따른 自己實現度를 檢討한 結果 本人 宗教에서와 마찬가지로 父母의 宗教가 없는 學生이 父母의 宗教가 있는 學生보다 包容性(C)을 除外한 11개 尺度에서 다소 높았으나 有意的 差異를 보인 尺度는 自己實現性(SAV), 自發性(S), 人間觀(Nc), 生活觀(Sy)으로 宗教와 自己實現度와는 다소 부정적인 關係를 보였다.

7. 實習前·後의 各 尺度間의 相關性

POI를 번역한 檢査紙의 項目間의 타당성과 応答者의 応答信賴度를 檢討하기 위하여 實習前 및 後의 全体応答者의 尺度間의 相關性을 檢討한 結果 거의 모든 尺度間에 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生活觀(Sy)은 相關이 없었다.

IV. 結論 및 提言

1. 臨床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就度에서 有意的 差異로 높아진 尺度는 現在指向性(Tc), 内部指向性(I), 自己價值感(Sr), 人間觀(Nc), 包容性(C)이었다.
2. 臨床實習 經驗이 있는 學生이 實習 經驗이 없는 學生에 비하여 内部指向性(I), 要求敏感性(Fr), 自發性(S), 自己價值感(Sr), 包容性(C)이 有意的 差異로 높았다.
3. 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就度에서 實習前보다 實習後에 有意的 差異로 높아진 尺度는 現在指向性(Tc), 自己價值感(Sr), 人間觀(Nc)이었다.
4. 非精神科 看護實習後에 일어나는 自己實現 成就度에서 實習前보다 實習後에 有意的 差異로 높아진 尺度는 内部指向性(I), 実存性(Ex), 要求敏感性(Fr), 自發性(S), 人間觀(Nc), 包容性(C)이었다.
5. 精神科 看護實習時보다 非精神科 看護實習時에

自己實現 成就가 다소 많이 일어났으나 有意的 差異로 현저한 變化를 보인 尺度는 自發性(S) 이었다.

6. 兄弟順位는 첫째, 막내, 中間의 順序로 自己實現되어 가고 있었다.

7. 無宗敎學生이 有宗敎學生에 비하여 自己實現度가 다소 높았으나 有意的 差異로 높은 尺度는 実存性(Ex)이었다.

無宗敎學生이 實習後 有意的 差異로 높아진 尺度는 現在指向性(Tc), 内部指向性(I), 自己價值感(Sr) 人間觀(Nc), 包容性(C)이었다.

有宗敎學生이 實習後 有意的 差異로 높아진 尺度는 内部指向性(I), 実存性(Ex), 自發性(S), 人間觀(Nc)이었다.

父母의 宗教가 있는 學生이 없는 學生에 비하여 有意的 差異로 높은 尺度는 自己實現性(SAV), 自發性(S), 人間觀(Nc), 生活觀(Sy)이었다.

本 研究의 結論에 따라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한다.

1. 自己實現檢査(POI)는 韓國人의 自己實現度를 측정하는 尺度로 信賴度 및 타당도를 樹立하기 위하여 더 큰 規模의 広範圍한 대상에게 적용하여 標準化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2. 低学年에서 高学年으로 갈수록 自己實現度가 높아가는 課程이 本 研究를 통해 나타난 點으로 보아 他科 女大生과 看護学科 學生에게 入学時부터 卒業時까지 縱的인 研究를 하여 自己實現度를 比較하여 본다.
3. 精神科 看護實習 期間이 自己實現에 미치는 影響을 밝히기 위하여 4주간의 實習을 한 本 研究와 그 期間을 倍加하여 實習한 境遇의 差異를 밝혀 본다.
4. 精神科 看護学 教科課程計劃에 있어서 看護學生 自身의 自己實現에 重點을 두고 教育을 함으로써 學生自身의 成熟을 圖謀하도록 한다.
5. 學生의 잠재력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좋은 環境의 實習地造成 및 精神科 看護 臨床實習目的과 符合될 수 있는 適切한 臨床實習指導方法의 모색이 必要하다.
6. 自己實現檢査를 利用하여 精神疾患者和 兄弟順位와의 關係를 研究하여 본다.
7. 宗教有無와 自己實現과의 關係를 보다 広範圍한 集團에게 適用하여 본다.

참 고 문 헌

- 강홍순 (1971), 「대한간호」, 제10권, 제 2 호, pp. 45 - 47.
- 김득룡 (1973), 「종교심리학」, 서울 : 세종문화사.
- 김소야자 (1973), 「간호학회지」, 제 3 권, 제 3 호, pp. 15-24.
- 김수지 (1972), 「대한간호」, 제11권, 제 1 호, pp. 33 - 52.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태길 (1969),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 서울 : 민중서관.
- 오가실 (1974), 「대한간호」, 제13권, 제 6 호, pp. 47 - 49.
- 이연실 (1972), “간호원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와 의 상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未刊行).
- 하영수 (1971), 「대한간호」, 제10권, 제 2 호, pp. 56 - 57.
- 한동세 (1974), 「정신과학」, 서울 : 일조각.
- 한윤복 (1970),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제19집, pp. 367-79.
- 후름, E. (1950), 「정신분석과 종교」, 박경화(역), 서울 :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 Brill, Norman Q. (1957), *A. J. N.*, 10 : 1325-26.
- Buhler, Charlotte (1962), *Values in psychotherapy*, New York : Free Press of Glencoe.
- Damm, Vernon J. (1969), *Educ. Psychol. Measure.*, 29 : 977-81.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Freud, S. (1949),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New York : W. W. Norton.
- Fromm, Erich (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 Harper and Row.
- _____ (1965),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Glasser, William (1965), *Reality therapy*, New York : Harper and Row.
- Goldstein, Kurt (1939), *Organism*, New York : American Books.
- Green, Edith (1967), *Relationship of self-actualization to achievement in nursing*,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 Gunter, Laurie M. (1969), *Nurs. Res.*, 18, No. 1, pp. 60-64.
- Hayes, Sister M. Immaculata and Wendell M. Swenson (1963), *Nur. Res.*, 12, No. 2, pp. 13-16.
- Horney, Karen (1937),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New York : W. W. Norton.
- Hardi, Raurie L. and W. T. May (1968), *J. Humanistic Psychol.*, 8 : 68-72.
- Johannsen, Walter J., Sister M. Constance Redel, and Ronald G. Engel (1964), *Nur. Res.* 13, No. 4, pp. 342-45.
- Klavetter, R. E. and R. E. Mogar (1967), *Psychol. Rep.*, 21 : 422-24.
- Knapp, R. R. (1965), *J. Consult. Psychol.*, 29, No. 2, pp. 168-72.
- Kramer, Marlene, Catherine McDonnell, and John L. Reed (1972), *Nur. Res.*, 21, No. 2, pp. 111-23.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 Van Nostrand.
- _____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and Row.
- _____ (1973),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 Viking.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 Shostrom, E. L. (1964), *Educ. Psychol. Measure.*, 24, No. 2, pp. 207-18.
- _____ (1967), *Man the manipulator*, Nashville : Abingdon press.
- _____ (1974), *EITS Manual for the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San Diego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Shostrom, E. L. and R. R. Knapp (1966), *Am. J. Psychother.*, 20, No. 1, pp. 193-202.
- Stevens, Leonard and Sister Theophane Umscheid (1968), *A. J. N.*, 68, No. 8, pp. 1720-24.
- Zaslave, Marshall D., J. Thomas Ungerleider, and Mariella Fuller (1968), *Am. J. Psychiat.*, 4 : 482-86.

Abstract

Self-Actualization of College of Nursing Students Resulting from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Kwang Ja Lee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Kun Hoo Le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personality changes in collegiate nursing students as a result of their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310 students in 8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96 with psychiatric practice, 103 with other clinical practice and 111 withou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identify:

1. The self-actualization scores of nursing students resulting from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2. The self-actualization scores of nursing students resulting from other clinical nursing practice.
3. The difference between scores for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those without experience.
4. The relevance between self-actualization and sibling order.
5. The relevance between self-actualization and religion.
6. The coefficient scores for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The instrument used was the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POI), developed by Shostrom. It provides a measure of values and behavior which are thought to be of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self-actualization.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ime Competence, Self Regard, and Nature of Man scales resulting from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ner Directed, Existentiality, Feeling Reactivity, Spontaneity, Nature of Man and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scales resulting from other clinical nursing practice.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ner Directed, Feeling Reactivity, Spontaneity, Self-Regard and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scales between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ose without practice.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Acceptance scale for both the eldest and the youngest siblings.
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ime Competence, Inner Directed, Existentiality, Self-Acceptance and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scales for middle and youngest siblings.
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istentiality scale between students with a religion and those without one.

7.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students without a religion in the Time Competence, Inner Directed, Self-Regard, Nature of Man, and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scales after clinical practice.
8.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students, with a religion in the Inner Directed, Existentiality, Spontaneity, and Nature of Man scales after clinical practice.
9.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students in the Self-Actualizing value, Spontaneity Nature of Man and Synergy scales according to whether their parents had a religion or not.
10. Before and after practice, significantly differe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Time Competence and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scales; the Inner Directed and Existentiality scales; the Self-Actualizing Value and the Feeling Reactivity, Spontaneity, Self-Regard and Nature of Man scales; the Feeling Reactivity and Acceptance of Aggression scales; the Spontaneity and the Self-Regard and Nature of Man scales; and between the Self-Regard and Nature of Man scales.